7 서울시정

목차

7 서울시정 1

7.1 재정 1

7.1.1 재정규모 1

7.2 자치구와 동 3

7.2.1 행정구역 변천 3

7.3 공무원 수 5

7.3.1 공무원 수 5

7.4 도시관리지표 8

7.4.1 범죄개괄 8
7.4.2 화재개괄 12
7.4.3 교통사고 개괄 14
7.4.4 풍수해 개괄 17
7.4.5 대기오염수준 개괄 19

7.1 재정

7.1.1 재정규모

표 7.1-1 재정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세입	세출
1957	NA	811	839
1958	NA	1,177	1,079
1959	NA	1,759	1,501
1960	NA	1,858	1,773
1961	NA	2,405	2,236
1962	NA	3,429	3,137
1963	NA	4,344	3,582
1964	NA	4,899	4,548
1965	7,525	6,725	5,840
1966	13,546	10,545	10,275
1967	17,863	14,262	14,172
1968	29,368	22,909	22,662
1969	41,593	35,105	34,632
1970	49,426	44,257	44,038
1971	67,122	55,165	54,745
1972	73,243	58,580	56,898
1973	80,869	79,220	72,681
1974	102,274	100,600	91,569
1975	167,580	163,105	151,898
1976	220,391	216,740	185,203
1977	331,160	319,236	272,759
1978	463,222	450,622	386,481
1979	651,101	581,230	514,254
1980	805,369	722,175	672,890
1981	1,003,204	877,532	774,604
1982	1,444,353	1,262,305	1,024,917
1983	1,795,265	1,646,732	1,322,095
1984	2,174,309	1,690,554	1,483,364
1985	2,319,004	1,853,823	1,705,749
1986	2,513,917	2,200,855	1,925,924
1987	2,483,928	2,443,714	1,940,853
1988	3,009,636	3,193,272	2,372,816
1989	4,343,886	4,744,159	3,537,582
1990	6,007,007	6,097,751	4,336,260
1991	7,536,973	7,903,028	6,109,989
1992	9,238,180	8,727,271	7,339,362
1993	9,819,083	8,953,591	7,640,507
1994	10,786,075	10,364,872	8,277,961
1995	11,617,533	11,980,114	9,318,464
1996	12,661,825	13,376,998	10,479,847
1997	14,281,422	13,868,489	11,625,377
1998	13,035,928	12,590,607	11,133,096
1999	13,845,910	13,983,111	11,937,540
2000	15,688,174	15,624,796	13,423,609
2001	17,132,681	17,517,809	14,719,396
2002	18,531,175	20,491,101	15,810,659
2003	21,089,844	22,918,734	17,909,422
2004	23,494,769	23,866,839	20,215,267
2005	24,372,008	24,245,449	21,216,739
2006	23,417,226	25,297,366	20,812,065
2007	27,315,122	28,824,769	24,069,053
2008	30,974,779	31,362,554	26,647,391
2009	36,046,424	34,583,900	31,618,951
2010	32,199,697	30,500,481	28,160,747
2011	31,003,315	30,757,083	28,318,085

주

1. 경상가격기준
2. 자치구 예산과 결산이 포함됨

자료출처

1. 1957 년~1995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 1996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주제별-행정일반-재정-예산결산총괄)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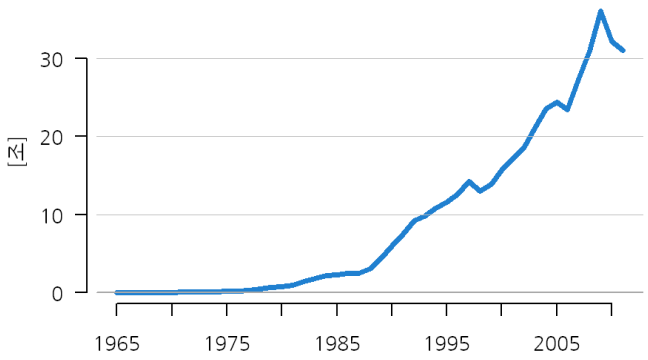

그림 7.1-1: 예산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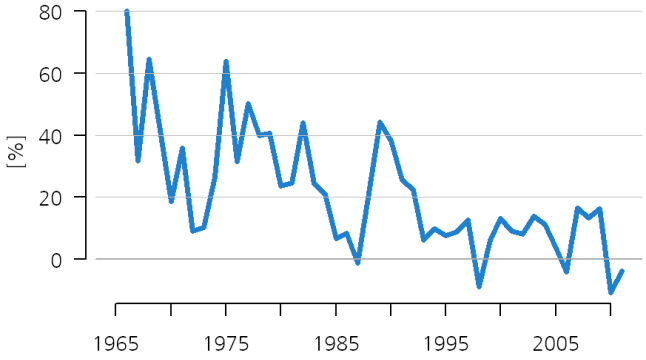

그림 7.1-2: 예산 증가율

서울시 재정규모는 1965 년 75 억원 수준이었다. 예산이 1,000 억원을 넘긴 것은 1974 년, 1981 년에는 1 조원을 돌파하였다. 1990 년 6 조원을 넘긴 예산은 4 년만인 1994 년 10 조원을 돌파하여 서울시 예산 10 조원 시대를 열었다. 그 후 지속적인 증가를 거쳐 서울시 예산은 2003 년 21 조원, 2009 년 36 조원이 되었으며, 1965 년의 75 억원 대비 4,790 배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규모의 증가는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본 단순한 증가이므로 반드시 실질적인 재정상의 증가로 볼 수만은 없다.

1965 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은 21.3%이다. 예산증가율은 1960 년대 54.5% 로 가장 높았으며, 1970 년대 32.7%, 1980 년대 21.7%, 1990 년대 12.9%로, 2000 년대 10.2%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였다. 증가율은 1960 년대가 가장 높았지만, 당시의 재정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액은 그리 많지 않다. 1970 년대 전반에는 부동산 침체와 유류파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크게 준 반면, 1970 년대 후반에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고도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힘입어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규모의 신장이 가속화 되었고, 도시기반시설 투자수요가 증대 되었다. 한편 증가율은 1960 년대보다 낮지만, 예산규모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1988 년에서 1997 년 사이이다. 이 시기는 88 올림픽 이후,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수출의 호황으로 경제가 활발하던 시기였으며, 1990 년대 들어 IMF 이전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현금의 흐름이 많았으며, 소비성향도 높아져 경제규모에 거품이 많던 시절이다. 2000 년대 들어 예산증가율은 약간 감소했지만, 지속적인 예산 증가로 2009 년 36 조로 가장 높은 예산규모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1 년 현재 31 조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7.2 자치구와 동

7.2.1 행정구역 변천

표 7.2-1 행정구역 조정연혁

연도	구의수	기존의 구	추가된 구
1943	7	이전에는 부면제, 출장소제도가 실시되었다.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1944	8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1949	9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북구
1973	11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1975	12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1977	13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1979	15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1980	17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 강동구
1988	22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1995	25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2011	25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은평구, 강동구, 송파구, 중랑구, 노원구,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자료출처

1.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 서울시, 서울 600 년사

서울의 행정구역은 1911 년부터 지금의 구제(區制)와는 달리 5 부(五 部) 8 면제(八面制)로 실시하였으나 1914 년 이를 폐지하고 동부, 서부, 북부, 용산의 4 개 출장소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1 년 후인 1915 년 용산출장소만 남기고 출장소들을 폐지하였다가, 1936 년 동부와 영등포출장소를 설치하였고,1940 년 다시 서부출장소를 설치하여 총 4 개의 출장소가 경성부 하관 관아로서 경성부 업무를 보조하였다. 이와 같은 출장소제는 1943 년 6 월 9 일 부령(府令) 제 163 호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때부터 경성부의 행정구역은 현재와 같은 구(區) 단위로 구획되었다.

구제가 처음 도입된 1943 년 당시에는 서울은 7 개의 구로 구성되었다. 이들 7 개 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용산구 및 영등포구인데, 이들이 1943 년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7 개 구이다.

1944 년에는 마포구가 신설되었고, 1949 년 성북구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들 9 개 자치구가 한국동란 이전부터 존속되어 왔으며, 1950 년대와 1960 년대에는 자치구의 신설이 없었다. 1963 년 대대적인 행정구역이 확대 되었지만, 서울에 편입된 지역들은 기존 구에 속하게 되었다. 서울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1970 년대 이후 서울은 행정구역의 규모는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구를 신설하고 재편하였다. 1973 년에는 도봉구와 관악구가 신설되어 11 개 구로 늘어났으며, 1975 년 강남구, 1977 년 강서구, 1979 년 구로구 및 동작구가 신설되었다. 이후에도 분구(分區)와 신설을 통해 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1995 년에는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가 신설되어 오늘과 같은 25 개 구가 구성되었다. 한편, 서울에는 2012 년 현재 총 423 개의 동(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으로 산정하면 467 개에 이른다.

표 7.2-2 행정구역 변천

단위: 개

연도	구	행정동	법정동	통	반
1951	9	344	NA	NA	NA
1952	9	344	NA	NA	NA
1953	9	344	NA	NA	11,430
1954	9	NA	NA	NA	14,289
1955	9	NA	NA	NA	NA
1956	9	NA	NA	NA	NA
1957	9	245	NA	2,417	19,296
1958	9	245	NA	2,440	18,957
1959	9	251	NA	2,568	21,194
1960	9	251	NA	2,624	22,104
1961	9	252	NA	2,856	24,643
1962	9	295	NA	3,232	27,100
1963	9	295	NA	3,262	27,332
1964	9	295	NA	3,393	28,729
1965	9	301	NA	3,507	29,704
1966	9	302	NA	3,676	31,216
1967	9	302	NA	3,833	32,678
1968	9	302	NA	3,983	34,067
1969	9	302	NA	4,037	34,553
1970	9	306	NA	4,953	42,603
1971	9	307	NA	5,473	47,372
1972	9	307	NA	5,533	47,782
1973	11	317	466	5,598	47,321
1974	11	317	468	5,860	49,202
1975	12	343	471	8,717	45,542
1976	12	343	471	8,685	56,711
1977	13	369	473	9,284	58,026
1978	13	382	473	9,456	58,727
1979	15	382	473	9,875	61,551
1980	17	417	474	11,011	66,657
1981	17	417	474	11,260	67,796
1982	17	417	474	12,361	95,439
1983	17	426	474	12,530	97,201
1984	17	426	474	12,920	101,396
1985	17	453	471	13,158	102,920
1986	17	453	470	13,473	105,173
1987	17	453	470	13,845	107,650
1988	22	475	470	14,385	111,290
1989	22	494	469	14,956	115,085
1990	22	506	469	15,341	117,332
1991	22	506	469	15,469	118,120
1992	22	519	469	15,995	120,258
1993	22	521	469	16,258	121,862
1994	22	526	469	16,371	122,489
1995	25	527	472	16,420	122,321
1996	25	530	472	16,226	120,848
1997	25	530	472	16,145	119,428
1998	25	522	472	15,267	112,734
1999	25	522	472	13,649	101,742
2000	25	522	472	13,691	102,138
2001	25	522	472	13,862	103,563
2002	25	522	472	13,798	102,698
2003	25	522	472	13,810	103,266
2004	25	522	472	13,759	103,192
2005	25	522	472	13,832	103,762
2006	25	522	472	13,603	103,104
2007	25	497	469	13,347	102,249
2008	25	436	478	13,147	101,512
2009	25	424	467	12,778	98,895
2010	25	424	467	12,756	99,098
2011	25	424	467	12,710	98,681
2012	25	423	467	12,476	97,466

자료출처

1. 1951 년~1959 년의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2. 1960 년~2012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주제별-행정일반-행정구역-행정구역(구별))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412)

7.3 공무원 수

7.3.1 공무원 수

표 7.3-1 공무원 수

단위: 명, %

연도	계	시본청		구청		시의회 및 직속기관	
		공무원수	비율	공무원수	비율	공무원수	비율
1957	2,377	499	21.0	1253	52.7	625	26.3
1958	4,087	516	12.6	2961	72.4	610	14.9
1959	4,054	507	12.5	3,028	74.7	519	12.8
1960	4,113	519	12.6	3,078	74.8	516	12.5
1961	5,085	693	13.6	3,730	73.4	662	13.0
1962	5,947	907	15.3	4,218	70.9	822	13.8
1963	6,719	969	14.4	4,178	62.2	1,572	23.4
1964	7,895	1,280	16.2	4,036	51.1	2,579	32.7
1965	8,066	1,275	15.8	4,071	50.5	2,720	33.7
1966	8,434	1,309	15.5	4,316	51.2	2,809	33.3
1967	8,751	1,357	15.5	4,504	51.5	2,890	33.0
1968	8,917	1,206	13.5	4,560	51.1	3,151	35.3
1969	9,648	1,207	12.5	5,284	54.8	3,157	32.7
1970	9,948	1,267	12.7	5,497	55.3	3,184	32.0
1971	10,935	1,492	13.6	5,977	54.7	3,466	31.7
1972	11,388	1,411	12.4	6,637	58.3	3,340	29.3
1973	11,316	1,391	12.3	6,658	58.8	3,267	28.9
1974	13,199	1,326	10.0	7,613	57.7	4,260	32.3
1975	14,470	1,396	9.6	9,688	67.0	3,386	23.4
1976	15,728	1,582	10.1	10,616	67.5	3,530	22.4
1977	17,457	1,967	11.3	11,792	67.5	3,698	21.2
1978	19,194	1,733	9.0	13,016	67.8	4,445	23.2
1979	20,829	1,881	9.0	14,142	67.9	4,806	23.1
1980	23,378	1,752	7.5	16,061	68.7	5,565	23.8
1981	28,021	1,781	6.4	18,077	64.5	8,163	29.1
1982	28,574	1,758	6.2	18,329	64.1	8,487	29.7
1983	27,081	1,768	6.5	18,702	69.1	6,611	24.4
1984	26,484	1,777	6.7	18,248	68.9	6,459	24.4
1985	27,323	1,887	6.9	18,949	69.4	6,487	23.7
1986	28,951	1,914	6.6	19,811	68.4	7,226	25.0
1987	29,396	1,886	6.4	20,050	68.2	7,460	25.4
1988	34,398	1,984	5.8	26,174	76.1	6,240	18.1
1989	41,632	1,914	4.6	31,196	74.9	8,522	20.5
1990	31,745	1,931	6.1	20,746	65.4	9,068	28.6

연도	계	시본청		구청		시의회 및 직속기관	
		공무원수	비율	공무원수	비율	공무원수	비율
1991	33,822	2,013	6.0	22,445	66.4	9,364	27.7
1992	35,565	1,990	5.6	23,802	66.9	9,773	27.5
1993	34,491	1,946	5.6	23,137	67.1	9,408	27.3
1994	35,136	1,969	5.6	22,742	64.7	10,425	29.7
1995	37,878	1,983	5.2	25,318	66.8	10,577	27.9
1996	38,901	2,432	6.3	25,644	65.9	10,825	27.8
1997	43,586	2,610	6.0	25,277	58.0	15,699	36.0
1998	39,187	2,414	6.2	22,500	57.4	14,273	36.4
1999	38,875	2,619	6.7	22,709	58.4	13,547	34.8
2000	39,162	2,741	7.0	22,994	58.7	13,427	34.3
2001	45,074	2,770	6.1	29,609	65.7	12,695	28.2
2002	45,522	2,813	6.2	29,704	65.3	13,005	28.6
2003	46,718	3,011	6.4	30,734	65.8	12,973	27.8
2004	47,156	3,158	6.7	31,035	65.8	12,963	27.5
2005	47,563	3,304	6.9	31,411	66.0	12,848	27.0
2006	47,933	3,295	6.9	31,598	65.9	13,040	27.2
2007	48,001	3,476	7.2	31,695	66.0	12,830	26.7
2008	46,320	3,460	7.5	30,470	65.8	12,390	26.7
2009	46,337	3,503	7.6	30,454	65.7	12,380	26.7
2010	46,523	3,664	7.9	30,467	65.5	12,392	26.6
2011	46,828	3,685	7.9	30,545	65.2	12,598	26.9

주

1. 시의회 및 직속기관 : 여기서 직속기관은 서울시 직속기관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사업본부, 시립대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경찰공무원은 제외된 수치임
3. 소방공무원은 1996 년 이전은 제외된 수치이며, 1997 년부터 시본청, 시의회 및 시직속기관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출처

1. 1957 년~1998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 1999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행정일반-공무원-공무원총괄(정원))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293)

1989 년까지의 통계에는 서울시의 공무원 수에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나, 1991 년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이 발족되면서 1990 년 통계부터 경찰공무원이 서울시 공무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7 년부터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본청, 시의회 및 시직속기관에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공무원수는 1960 년 4,113 명에서 2011 년 46,828 명으로 증가하였다. 본청공무원의 수는 1960 년 519 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1 년에는 3,685 명을 넘어섰다.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동사무소 공무원을 포함한 구청공무원으로서 1960 년에는 전체 서울시 공무원의 74.8%를 차지하는 3,078 명 이었는데, 2003 년에 이르러는 30,000 명을 넘어섰으며, 2011 년 구청 공무원의 비율은 65.2%로 낮아졌다. 시의회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1960 년 516 명에서 2011 년 12,598 로 늘어남으로써 시정업무의 전문화에 따른 직속기관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

본청 공무원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추이는 완만한 편이다. 1964 년 처음으로 1,000 명 선을 넘어선 이후 1995 년까지 1,700~1,900 명 선을 유지해왔으며, 1996 년 들어서야 2000 명을 넘어 2011 년 현재 3,685 명이다. 본청공무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었으나, 전체 서울시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 년대 후반부터 10%이하로 줄어 2011 년

현재 7.9%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청 공무원은 1970~1980 년대에 특히 많이 늘었는데, 1970 년대에 2.6 배, 80 년대에 1.9 배 늘었다. 특히 1988~1989 년에는 절대 규모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늘어난 시기로 1988 년 34,398 명에서 1989 년 41,632 명으로 7 천 명 이상이 일시에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앞서 구 기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 년대 들어서면서 정부의 비대와 비효율이 지적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구청 공무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구청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0~60%대의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2011 년 현재 65.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수 증가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인력이다. 1960 년 당시 전체 516 명 에 불과하던 인력이 2011 년 12,598 명으로 24.4 배 늘었다. 구성비에서도 1960 년 당시 전체 공무원의 12.5%에 불과하던 것이 2011 년에는 26.9%로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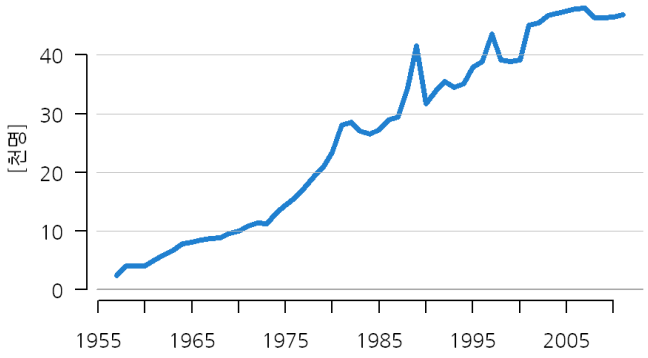

그림 7.3-1: 공무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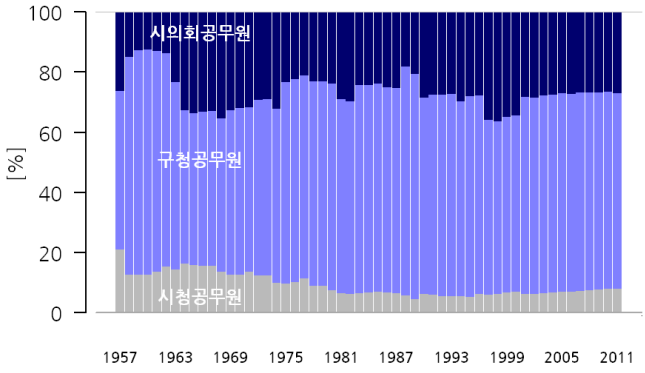

그림 7.3-2: 공무원 비율

7.4 도시관리지표

7.4.1 범죄개괄

표 7.4-1 범죄개괄

단위: 건, %

연도	범죄 발생 및 검거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특별법범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1951	5,558	5,149	92.6	8.6	94	1.7	1,429	25.7	-	-	-	-	1,186	21.3	2,849	51.3
1952	20,130	19,999	99.3	28.1	164	0.8	6,847	34.0	-	-	-	-	7,309	36.3	5,810	28.9
1953	18,089	18,041	99.7	17.9	153	0.8	4,425	24.5	-	-	-	-	4,246	23.5	9,265	51.2
1954	26,218	23,208	88.5	21.1	217	0.8	5,088	19.4	-	-	-	-	3,743	14.3	17,170	65.5
1955	40,973	35,795	87.4	26.0	271	0.7	7,912	19.3	-	-	-	-	6,122	14.9	26,668	65.1
1956	51,392	46,293	90.1	34.2	253	0.5	8,131	15.8	-	-	-	-	6,059	11.8	36,949	71.9
1957	43,757	37,447	85.6	26.3	283	0.6	10,082	23.0	-	-	-	-	7,016	16.0	26,376	60.3
1958	61,741	52,161	84.5	35.2	228	0.4	13,874	22.5	-	-	-	-	8,655	14.0	38,984	63.1
1959	47,506	38,562	81.2	22.7	241	0.5	14,367	30.2	-	-	-	-	9,904	20.8	22,994	48.4
1960	172,867	154,545	89.4	70.7	558	0.3	22,978	13.3	-	-	-	-	13,163	7.6	136,168	78.8
1961	186,699	158,240	84.8	72.2	743	0.4	33,764	18.1	-	-	-	-	20,228	10.8	131,964	70.7
1962	251,115	225,303	89.7	84.2	352	0.1	32,741	13.0	-	-	-	-	62,551	24.9	155,471	61.9
1963	190,839	161,403	84.6	58.6	355	0.2	38,332	20.1	-	-	-	-	27,218	14.3	124,934	65.5
1964	206,175	184,349	89.4	60.2	538	0.3	42,244	20.5	-	-	-	-	26,071	12.6	137,322	66.6
1965	227,658	214,278	94.1	65.6	471	0.2	36,806	16.2	-	-	-	-	25,583	11.2	164,798	72.4
1966	210,806	193,934	92.0	55.6	493	0.2	29,920	14.2	-	-	-	-	27,898	13.2	152,495	72.3
1967	188,594	165,151	87.6	47.5	527	0.3	27,168	14.4	14,129	7.5	-	-	23,904	12.7	122,866	65.1
1968	272,950	261,877	95.9	63.0	559	0.2	26,805	9.8	6,270	2.3	8,967	3.3	24,612	9.0	205,737	75.4
1969	266,473	257,000	96.4	55.8	463	0.2	24,656	9.3	17,666	6.6	10,465	3.9	15,527	5.8	197,696	74.2
1970	210,135	197,092	93.8	38.7	546	0.3	24,020	11.4	21,100	10.0	11,241	5.3	17,562	8.4	135,666	64.6
1971	225,169	209,376	93.0	40.8	701	0.3	25,781	11.4	20,984	9.3	11,202	5.0	20,674	9.2	145,827	64.8
1972	485,016	470,627	97.0	82.9	698	0.1	24,906	5.1	19,702	4.1	13,757	2.8	21,693	4.5	404,260	83.3
1973	93,607	83,541	89.2	15.4	610	0.7	23,290	24.9	17,647	18.9	13,969	14.9	22,252	23.8	15,839	16.9
1974	90,799	77,170	85.0	14.4	685	0.8	24,793	27.3	20,183	22.2	12,279	13.5	21,655	23.8	11,204	12.3
1975	110,291	91,835	83.3	16.0	948	0.9	27,494	24.9	26,153	23.7	14,388	13.0	25,936	23.5	15,372	13.9
1976	135,724	116,509	85.8	18.7	954	0.7	27,496	20.3	27,630	20.4	16,569	12.2	27,675	20.4	35,400	26.1
1977	146,790	127,781	87.1	19.5	977	0.7	25,008	17.0	27,651	18.8	16,620	11.3	33,580	22.9	42,954	29.3
1978	151,188	129,644	85.8	19.3	809	0.5	26,546	17.6	25,627	17.0	15,232	10.1	36,983	24.5	45,991	30.4

연도	범죄 발생 및 검거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특별법범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1979	160,702	136,446	84.9	19.8	982	0.6	27,008	16.8	25,863	16.1	15,239	9.5	33,843	21.1	57,767	35.9
1980	172,500	149,295	86.5	20.6	1,341	0.8	25,900	15.0	27,954	16.2	24,032	13.9	36,844	21.4	56,429	32.7
1981	178,854	156,387	87.4	20.6	1,385	0.8	25,239	14.1	28,601	16.0	31,234	17.5	39,374	22.0	53,021	29.6
1982	196,423	170,667	86.9	22.0	1,679	0.9	29,641	15.1	37,861	19.3	32,787	16.7	43,899	22.3	50,556	25.7
1983	242,743	199,328	82.1	26.4	1,744	0.7	31,917	13.1	41,062	16.9	28,421	11.7	52,747	21.7	86,852	35.8
1984	238,676	207,146	86.8	25.1	1,928	0.8	27,528	11.5	43,849	18.4	28,984	12.1	53,300	22.3	83,087	34.8
1985	239,470	207,262	86.6	24.8	2,189	0.9	26,418	11.0	48,150	20.1	26,715	11.2	54,435	22.7	81,563	34.1
1986	248,887	218,367	87.7	25.4	1,903	0.8	26,631	10.7	49,969	20.1	26,931	10.8	51,522	20.7	91,931	36.9
1987	278,846	248,486	89.1	27.9	1,965	0.7	23,130	8.3	56,081	20.1	26,477	9.5	57,547	20.6	113,646	40.8
1988	270,854	247,514	91.4	26.3	1,878	0.7	19,564	7.2	49,142	18.1	22,707	8.4	60,640	22.4	116,923	43.2
1989	324,529	279,781	86.2	30.7	2,417	0.7	35,986	11.1	55,905	17.2	21,649	6.7	66,217	20.4	142,355	43.9
1990	309,165	271,784	87.9	29.1	2,848	0.9	31,265	10.1	52,021	16.8	20,494	6.6	63,235	20.5	139,302	45.1
1991	310,362	287,004	92.5	28.5	2,192	0.7	25,020	8.1	53,287	17.2	23,153	7.5	59,864	19.3	146,846	47.3
1992	314,957	291,322	92.5	28.7	2,125	0.7	21,763	6.9	53,019	16.8	33,755	10.7	57,340	18.2	146,955	46.7
1993	345,568	335,598	97.1	31.6	2,887	0.8	17,686	5.1	59,473	17.2	43,937	12.7	58,206	16.8	163,379	47.3
1994	348,993	308,278	88.3	32.3	3,184	0.9	15,699	4.5	60,624	17.4	52,221	15.0	29,572	8.5	187,693	53.8
1995	353,994	314,621	88.9	33.4	2,420	0.7	15,908	4.5	57,914	16.4	65,679	18.6	9,116	2.6	202,957	57.3
1996	349,118	322,684	92.4	33.3	2,247	0.6	13,835	4.0	57,738	16.5	64,932	18.6	9,325	2.7	201,041	57.6
1997	349,414	326,372	93.4	33.6	2,370	0.7	12,947	3.7	58,548	16.8	56,599	16.2	9,211	2.6	209,739	60.0
1998	376,053	347,953	92.5	36.4	2,662	0.7	15,793	4.2	68,203	18.1	61,658	16.4	9,459	2.5	218,278	58.0
1999	349,465	332,654	95.2	33.9	2,841	0.8	14,543	4.2	85,257	24.4	57,787	16.5	11,119	3.2	177,918	50.9
2000	370,838	325,294	87.7	35.7	3,337	0.9	36,029	9.7	96,934	26.1	46,219	12.5	12,519	3.4	175,800	47.4
2001	410,054	357,238	87.1	39.7	4,022	1.0	52,238	12.7	98,983	24.1	46,593	11.4	12,952	3.2	195,266	47.6
2002	375,940	342,817	91.2	36.6	4,078	1.1	61,709	16.4	81,847	21.8	46,751	12.4	12,034	3.2	169,521	45.1
2003	382,833	340,154	88.9	37.3	4,928	1.3	57,744	15.1	81,922	21.4	57,380	15.0	11,420	3.0	169,439	44.3
2004	392,342	337,989	86.1	38.1	3,941	1.0	36,206	9.2	80,361	20.5	72,643	18.5	12,111	3.1	187,080	47.7
2005	350,502	308,481	88.0	34.0	3,870	1.1	33,981	9.7	74,815	21.3	65,607	18.7	12,417	3.5	159,812	45.6
2006	346,810	303,128	87.4	33.5	3,798	1.1	29,261	8.4	70,754	20.4	68,755	19.8	15,807	4.6	158,435	45.7
2007	355,735	315,886	88.8	34.1	3,383	1.0	29,977	8.4	74,020	20.8	54,551	15.3	16,633	4.7	177,171	49.8
2008	392,643	340,920	86.8	37.6	3,778	1.0	28,900	7.4	74,290	18.9	62,149	15.8	18,465	4.7	205,061	52.2
2009	405,432	354,537	87.4	38.7	4,495	1.1	37,175	9.2	73,069	18.0	72,262	17.8	23,067	5.7	195,364	48.2
2010	348,189	286,626	82.3	32.9	6,628	1.9	49,382	14.2	68,798	19.8	66,368	19.1	17,516	5.0	139,497	40.1
2011	358,752	273,115	76.1	34.1	6,889	1.9	54,412	15.2	72,062	20.1	71,254	19.9	18,859	5.3	135,276	37.7

주

1. 범죄발생율은 서울시 인구 천명당 발생범죄 건수임
2. 1996 년~2011 년은 풍속범이 기타 형사범에 포함

3. 특별법범은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등 형법상에 규정되지 않고 행정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범죄는 아님.
4. 1957 년~1972 년의 자료에는 특별법범에 경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1973 년 1 월부터 특별법범에서 경범이 제외되었음

자료출처

1. 1957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안전-범죄-범죄발생현황)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581)

서울의 범죄 발생건수 데이타는 1951 년부터 있지만, 1951 년~1972 년 까지는 풍속범이 특별법범에 포함되어 있어 일관된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법범에 풍속범이 제외된 1973 년 데이터부터 살펴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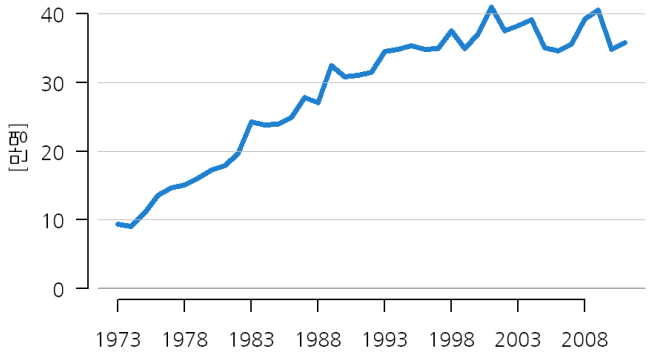

그림 7.4-1: 범죄 발생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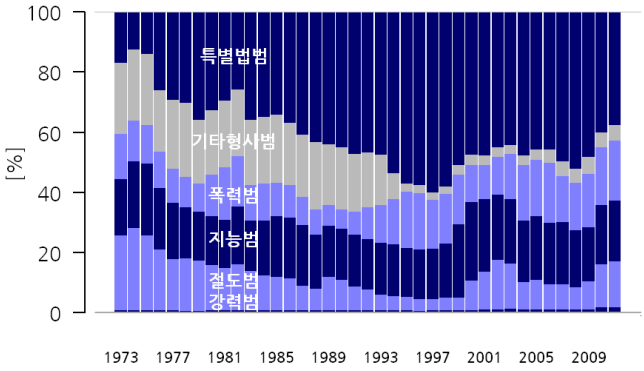

그림 7.4-2: 발생 범죄 유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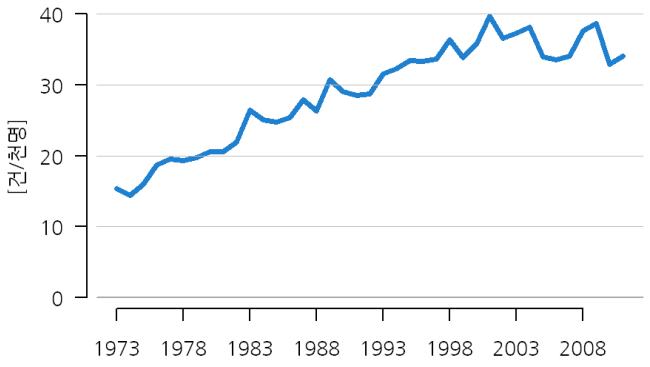

그림 7.4-3: 범죄 발생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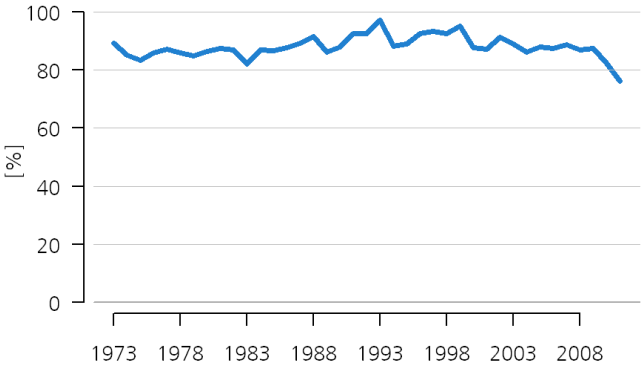

그림 7.4-4: 범죄 검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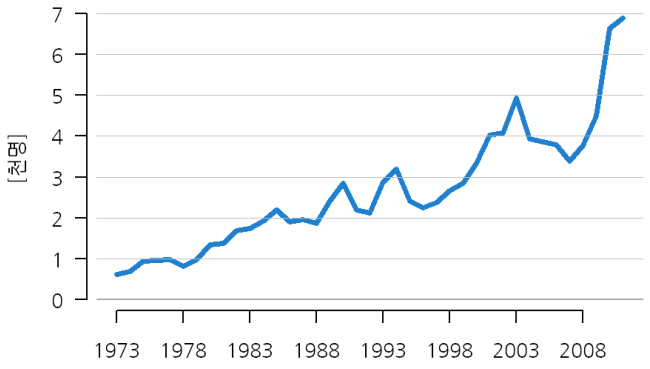

그림 7.4-5: 강력범 발생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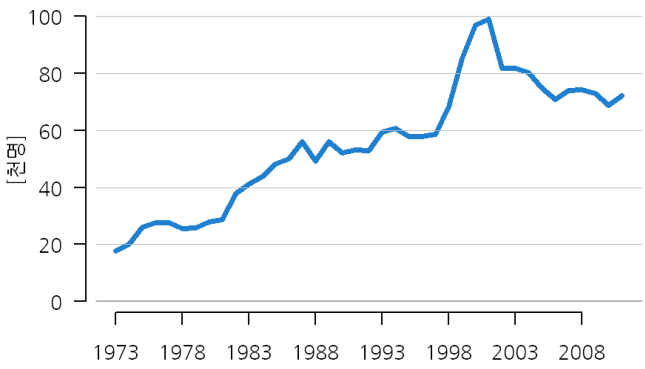

그림 7.4-6: 폭력범 발생건수

표 7.4-2 5 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

연도	5 대 범죄 발생 및 검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발생	비율
2000	136,051	106,978	78.6	13.1	167	0.1	1,399	1.0	1,522	1.1	36,029	26.5	96,934	71.2
2001	154,928	118,710	76.6	15.0	203	0.1	1,874	1.2	1,631	1.1	52,237	33.7	98,983	63.9
2002	147,340	127,353	86.4	14.3	169	0.1	2,134	1.4	1,481	1.0	61,709	41.9	81,847	55.5
2003	144,263	123,131	85.4	14.0	172	0.1	2,841	2.0	1,584	1.1	57,744	40.0	81,922	56.8
2004	120,243	98,870	82.2	11.7	229	0.2	1,655	1.4	1,737	1.4	36,240	30.1	80,382	66.8
2005	112,315	96,008	85.5	10.9	218	0.2	1,478	1.3	1,806	1.6	34,006	30.3	74,807	66.6
2006	103,487	89,465	86.5	10.0	200	0.2	1,201	1.2	2,071	2.0	29,261	28.3	70,754	68.4
2007	107,380	94,226	87.8	10.3	219	0.2	1,077	1.0	2,087	1.9	29,977	27.9	74,020	68.9
2008	106,609	91,810	86.1	10.2	220	0.2	948	0.9	2,221	2.1	28,914	27.1	74,306	69.7
2009	114,423	100,607	87.9	10.9	250	0.2	1,512	1.3	2,393	2.1	37,189	32.5	73,079	63.9
2010	124,447	92,707	74.5	11.8	294	0.2	1,029	0.8	4,939	4.0	49,387	39.7	68,798	55.3
2011	132,939	85,500	64.3	12.6	258	0.2	956	0.7	5,252	4.0	54,412	40.9	72,061	54.2

주

1. 범죄발생율은 서울시 인구 천명당 발생범죄 건수임

자료출처

1. 2000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 (주제별-안전-범죄-5 대범죄발생현황)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316)

1970 년대 이후 서울에서의 범죄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70 년대 중반 10 만 건을 넘어선 범죄발생 건수는 1980 년대 들어 20 만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인구가 1000 만을 돌파한 이후 1989 년에는 30 만 건을 돌파하였고 2001 년 현재 41 만 건을 상회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1 년 현재 35 만건 수준이다. 서울시의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천 명당 범죄건수 증가를 보면, 1973 년 천 명당 14.9 건 이던 것이 2.4 배 증가하여 천 명당 35.7 건이 된다. 이러한 범죄 건수 증가는 1980 년 이후 특별법범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별법범이 증가한 이유는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범죄가 급증한 데다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해지는 현상에 수반하여 각종 형태의 반사회적 활동이 확산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력범의 경우 범죄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0.9%로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절도범의 경우 발생건수는 연도별로 기복을 보이는데, 1990 년대 후반이후 15,000 건 내외를 보이다가 2011 년 54,000 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폭력범의 경우도 전체 범죄 가운데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능범의 비율은 1990 년대 중반이후 18%대에서 2001 년 11%대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현재 20%대로 다시 증가하였다.

서울시 5 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지난 10 여년간(2000 년~2011 년) 연평균 12 만 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 년 현재 폭력이 약 5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전체적으로 2006 년까지 감소세에 있다가 2007 년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폭력의 경우 2000 년 96,934 건에서 2011 년 72,061 건으로 약 2 만건 이상 감소하였다. 강간의 경우 2000 년 1,522 건에서 2011 년 5,252 건으로 약 3.5 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살인이 2000 년 167 건에서 258 건으로 약 1.5 배 증가하였다.

7.4.2 화재개괄

표 7.4-3 화재개괄

단위: 건, 명, 천원

연도	발생건수	소실면적	인명피해		재산	건당재산	인구십만명당
			사망	부상	피해액	피해액	발생건수
1965	1,126	NA	NA	NA	153,758	137	32.4
1966	1,233	NA	NA	NA	121,276	98	32.5
1967	1,390	NA	NA	NA	174,911	126	35.0
1968	1,515	NA	NA	NA	588,347	388	34.9
1969	1,751	NA	NA	NA	349,787	200	36.7
1970	1,912	61,934	74	308	502,239	263	35.2
1971	1,793	65,848	1,190	310	984,016	549	30.6
1972	1,644	62,858	103	377	707,108	430	27.1
1973	1,844	55,341	44	377	364,097	197	29.3
1974	1,865	47,338	160	481	370,444	199	28.5
1975	1,949	78,210	82	392	1,233,759	633	28.3
1976	2,154	60,311	65	301	705,144	327	29.7
1977	2,453	74,666	90	361	1,314,245	536	32.6
1978	2,670	72,089	80	369	1,436,517	538	34.1
1979	2,697	84,691	126	343	1,669,744	619	33.2
1980	2,344	66,125	85	227	1,201,169	512	28.0
1981	2,446	16,820	93	273	1,950,519	797	28.2
1982	2,684	19,426	75	241	2,664,338	993	30.1
1983	3,160	24,901	85	358	2,993,770	947	34.3
1984	3,347	81,311	102	359	3,679,737	1,099	35.2
1985	3,201	83,328	65	304	3,479,800	1,087	33.2
1986	3,190	77,881	117	345	2,474,780	776	32.6
1987	3,800	97,897	88	476	4,406,333	1,160	38.0
1988	4,668	103,541	87	387	5,164,090	1,106	45.4
1989	4,500	103,346	112	350	4,539,070	1,009	42.5
1990	5,093	99,179	89	379	3,998,714	785	48.0
1991	5,648	126,332	145	370	7,130,160	1,262	51.8
1992	5,198	112,775	124	256	6,001,950	1,155	47.4
1993	5,639	115,192	136	294	6,242,039	1,107	51.6
1994	6,120	122,910	137	369	9,450,377	1,544	56.7
1995	7,153	160,832	119	426	16,307,125	2,280	69.9
1996	6,843	128,782	114	365	11,811,430	1,726	65.4
1997	6,795	118,190	114	405	12,253,065	1,803	65.4
1998	7,511	105,293	90	340	17,620,111	2,346	72.8
1999	6,917	81,798	51	277	13,634,245	1,971	67.0
2000	7,058	79,023	100	332	17,338,551	2,457	68.0
2001	7,379	66,357	98	351	16,162,507	2,190	71.4

연도	발생건수	소실면적	인명피해		재산	건당재산	인구십만명당
			사망	부상	피해액	피해액	발생건수
2002	6,017	69,824	61	290	14,400,117	2,393	58.5
2003	5,503	44,517	60	333	11,768,588	2,139	53.5
2004	5,421	42,467	58	239	10,645,653	1,964	52.7
2005	4,996	44,211	79	257	12,082,338	2,418	48.5
2006	4,907	44,020	56	275	9,022,818	1,839	47.4
2007	6,698	68,195	60	403	17,895,405	2,672	64.3
2008	6,731	77,681	54	286	26,322,956	3,911	64.4
2009	6,318	73,113	37	220	15,571,156	2,465	60.4
2010	5,321	32,138	42	188	14,503,873	2,726	50.3
2011	5,526	41,944	29	168	14,185,528	2,567	52.5

자료출처

1. 1965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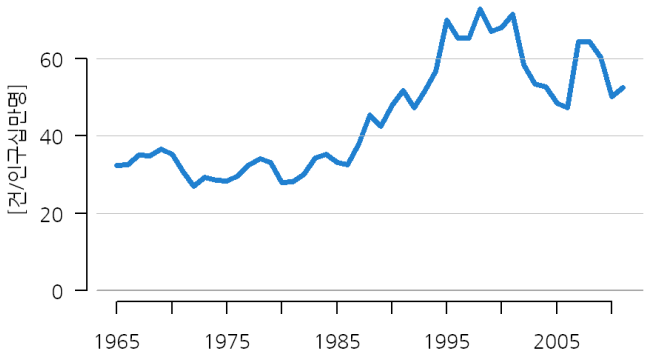

그림 7.4-7: 인구 십만 명당 화재 발생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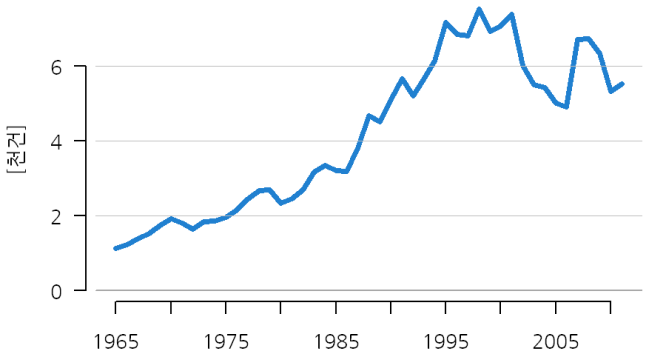

그림 7.4-8: 화재 발생 건수 추이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총 화재발생건수는 1965 년 1,126 건에서 2001 년 7,058 건으로 6.3 배나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6 년에는 4,907 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 년 국가화재분류 체계 시행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08 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 년에는 5,526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인구 10 만 명당 발생건수로 보면 1965 년 32.4 건에서 2001 년 71.4 건으로 2.2 배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1 년에는 52.5 건으로 감소하였다.

1970 년대 평균발생건수는 2,098 건, 평균 사망자수 201 명, 평균 부상자수 362 명이었으나, 1990 년대에 평균 발생건수는 6,292 건, 평균 사망자수 112 명, 평균 부상자수 348 명으로 평균 발생건수가 증가한 반면, 평균 사망자수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1990 년대 들어서 전체적으로 화재 발생건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부상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화재당 인명피해가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재산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은 물론 화재 건당 피해액도 늘어났다. 화재 건당 피해액은 70 년대까지 최고 60 만원 수준이었으나, 1984 년 이후부터 평균 1 백만원을 넘으며, 90 년대 후반에는 2 백만원을 넘었다. 재산피해액이 가장 큰 해는 2008 년 263 억원으로 숭례문 화재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7.4-4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본 서울시 10 대 화재

인명피해 10 대 화재			재산피해 10 대 화재		
1971 년 12 월 25 일	중구 충무로 대연각 화재	사망 163 명	1991 년 12 월 4 일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15 억원
1972 년 12 월 2 일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사망 81 명	1995 년 11 월 5 일	성동구 도선동 왕십리종합시장	15 억원
1974 년 11 월 3 일	동대문구 전농 2 동 대왕코너	사망 88 명	2005 년 12 월 1 일	종로구 창신 1 동 동문상가	15 억원
1987 년 8 월 14 일	강서구 공항동 공항창고	사망 9 명	1995 년 3 월 22 일	송파구 잠실 3 동 롯데월드쇼핑몰	9 억원
1967 년 4 월 8 일	성동구 청구동 “C46 항공기”	사망 59 명	1994 년 3 월 10 일	종로구 종로 5 가 동대문구간 지하통신구	9 억원
1972 년 8 월 5 일	동대문구 전농 2 동 대왕코너	사망 6 명	1971 년 12 월 25 일	중구 충무로 대연각 호텔	8 억원
1974 년 10 월 17 일	중구 회현동 뉴남산관광호텔	사망 19 명	1994 년 12 월 7 일	마포구 아현 1 동 한국가스공사	6 억원
1994 년 12 월 7 일	마포구 아현 3 동 한국가스공사	사망 12 명	1981 년 11 월 9 일	구로구 가리봉동 우미나이론공업	6 억원
2007 년 3 월 17 일	구로구 신도림동 미래사랑시티	사망 1 명	1985 년 3 월 23 일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	5 억원
1987 년 4 월 19 일	서대문구 홍제 2 동 광명사	사망 2 명	2008 년 2 월 10 일	중구 남대문로 서울숭례문	100 억원

자료출처

1.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소방행정백서, 2012 년

7.4.3 교통사고 개괄

표 7.4-5 교통사고 개괄

단위: 건, 명

연도	발생 건수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	사상자수	사망자수	비율	인구십만명당 사망자수	자동차 일만대당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율	인구십만명당 부상자수	자동차일만대당 부상자수
1965	7,265	209	6,635	320	4.8	9	192	6,315	95.2	182	3,799
1966	6,683	176	6,692	232	3.5	6	112	6,460	96.5	170	3,130
1967	8,360	211	8,152	179	2.2	5	70	7,973	97.8	201	3,105
1968	11,598	268	10,195	220	2.2	5	63	9,975	97.8	230	2,839
1969	14,038	294	12,645	404	3.2	8	81	12,241	96.8	256	2,467
1970	15,963	294	14,323	534	3.7	10	88	13,789	96.3	254	2,281
1971	21,496	367	19,258	725	3.8	12	108	18,533	96.2	317	2,755
1972	20,024	330	17,803	748	4.2	12	109	17,055	95.8	281	2,490
1973	18,165	289	16,886	660	3.9	10	86	16,226	96.1	258	2,127
1974	18,909	289	18,331	711	3.9	11	89	17,620	96.1	269	2,196
1975	25,155	365	21,942	845	3.9	12	99	21,097	96.1	306	2,470
1976	29,410	405	22,370	859	3.8	12	89	21,511	96.2	297	2,228
1977	28,200	375	23,582	815	3.5	11	66	22,767	96.5	303	1,847
1978	30,576	391	26,554	956	3.6	12	57	25,598	96.4	327	1,532
1979	36,472	449	31,499	1,109	3.5	14	55	30,390	96.5	375	1,511

연도	발생 건수	인구십만명당 발생건수	사상자수	사망자수	비율	인구십만명당 사망자수	자동차 일만대당 사망자수	부상자수	비율	인구십만명당 부상자수	자동차일만대당 부상자수
1980	37,657	450	33,409	1,041	3.1	12	50	32,368	96.9	387	1,565
1981	41,040	473	36,002	1,074	3.0	12	48	34,928	97.0	403	1,576
1982	44,261	496	39,989	1,091	2.7	12	43	38,898	97.3	436	1,534
1983	51,831	563	45,703	1,169	2.6	13	37	44,534	97.4	484	1,415
1984	39,700	418	49,757	1,262	2.5	13	33	48,495	97.5	510	1,286
1985	42,828	444	54,629	1,208	2.2	13	27	53,421	97.8	554	1,198
1986	41,884	427	52,946	1,031	1.9	11	20	51,915	98.1	530	995
1987	49,413	495	62,189	1,073	1.7	11	17	61,116	98.3	612	967
1988	56,008	544	71,596	1,242	1.7	12	16	70,354	98.3	684	903
1989	63,835	604	80,412	1,371	1.7	13	14	79,041	98.3	747	797
1990	58,231	549	72,409	1,254	1.7	12	11	71,155	98.3	670	596
1991	56,528	518	69,327	1,305	1.9	12	9	68,022	98.1	624	495
1992	51,333	468	63,823	986	1.5	9	6	62,837	98.5	573	400
1993	49,422	452	62,845	809	1.3	7	5	62,036	98.7	568	354
1994	46,479	430	60,576	802	1.3	7	4	59,774	98.7	554	309
1995	42,100	397	55,229	865	1.6	8	4	54,364	98.4	513	266
1996	46,031	440	61,432	789	1.3	8	4	60,643	98.7	579	280
1997	40,863	393	55,745	606	1.1	6	3	55,139	98.9	531	245
1998	42,055	407	58,214	545	0.9	5	2	57,669	99.1	559	262
1999	50,047	485	70,022	566	0.8	5	2	69,456	99.2	673	302
2000	53,569	516	75,147	748	1.0	7	3	74,399	99.0	717	305
2001	45,255	438	64,242	507	0.8	5	2	63,735	99.2	617	250
2002	39,412	383	56,410	509	0.9	5	2	55,901	99.1	544	208
2003	40,279	392	59,181	504	0.9	5	2	58,677	99.1	571	211
2004	38,714	376	57,329	468	0.8	5	2	56,861	99.2	553	205
2005	38,528	374	57,713	481	0.8	5	2	57,232	99.2	556	204
2006	38,234	369	56,789	447	0.8	4	2	56,342	99.2	544	197
2007	39,360	378	57,838	445	0.8	4	2	57,393	99.2	551	196
2008	41,643	398	60,274	477	0.8	5	2	59,797	99.2	572	203
2009	44,259	423	63,934	495	0.8	5	2	63,439	99.2	606	215
2010	41,601	393	60,019	424	0.7	4	1	59,595	99.3	564	200
2011	40,393	384	57,909	430	0.7	4	1	57,479	99.3	546	193

주

1. 1983 년의 자동차 일만대당 부상자수는 원자료에 오기가 발견되어 이를 '부상자수'와 자동차수로 다시 계산하여 정정 기입
2. 기타에 분류되었던 원동기사고건수를 이륜차에 포함함(2005 년부터)
3. 자동차 1 만대당 사고건수=(사고건수/(자동차수+이륜차수))*10,000
4. 인구 10 만명당 사고건수=(사고건수/(내국인+외국인))*100,000

자료출처

1. 1965 년~1998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 1999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주제별-안전-사고-교통사고현황(사망, 부상))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10057)
3. 원출처는 서울지방경찰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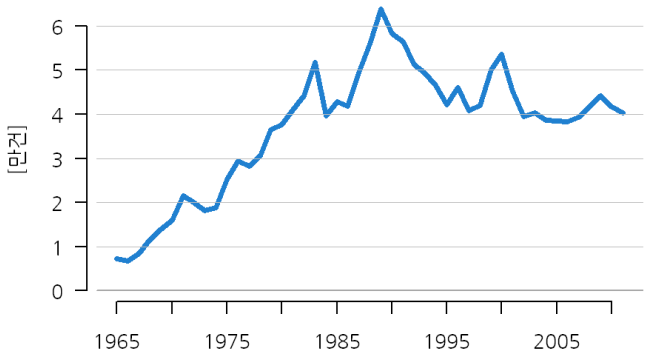

그림 7.4-9: 교통사고 발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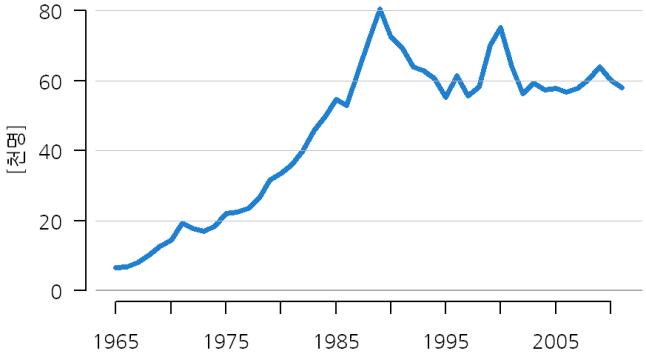

그림 7.4-10: 교통사고 사상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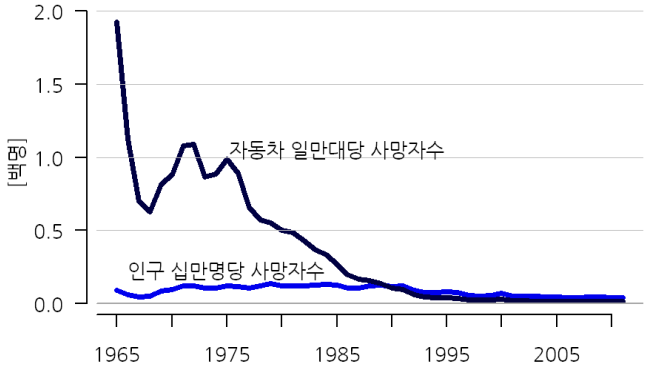

그림 7.4-11: 교통사고 사망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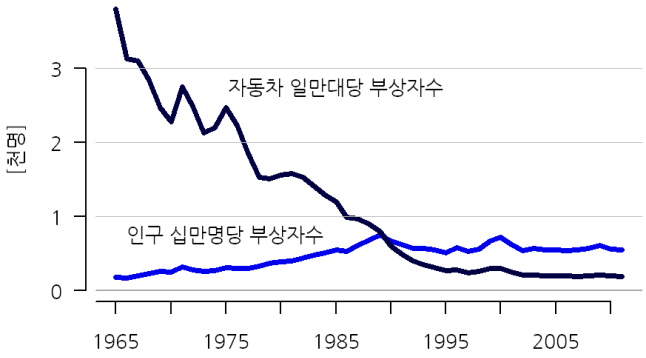

그림 7.4-12: 교통사고 부상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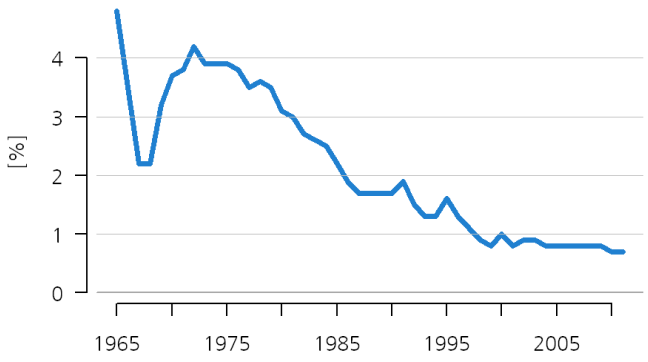

그림 7.4-13: 교통사고 사망자비율 추이

서울에서의 교통사고발생은 1960 년대 후반 이후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건수가 늘어왔으나 1980 년대 이후는 시기에 따라 증감을 계속해 왔다. 1960 년대 후반 1 만 건을 넘어선 교통사고발생 건수는 1980 년대 들어 4 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고, 1989 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3,835 건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후 감소추세를 보여 1997 년에는 40,863 건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2000 년 53,569 건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년 현재 40,393 건을 보이고 있다. 인구 10 만 명당 교통사고발생 건수를 보면 1970 년대 중반까지는 인구 10 만 명당 300 건 이하이었으나 1980 년대 이후 400 건을 넘어섰고, 1980 년대 후반 및 1990 년대에는 500~600 건으로 증가하였다가 1997 년에는 400 건 이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 년 다시 500 건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년 400 건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세 속에서 사망자의 수는 1980 년대에 연간 1000 명을 넘어섰던 것에 비해 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 년대 후반 500 명대로 줄었던 것에 비교하면 2000 년에는 748 명 으로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년 현재 연간 384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1 만 대당 사망자수를 보면 1970 년대 이후 급속히 줄고 있다. 1970 년대 초반에는 자동차 10 만 대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100 명을 넘어섰으나 1980 년 이후 50 명 이하 로 줄고, 1990 년대 들어서는 10 명 이하로 감소하여 2011 년 현재 4 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상자의 수도 사망자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 건수에 있어 1980 년대 후반 피크에 달했다가 그 후 감소추세를 보인 후 2000 년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년 현재 6 만명 미만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인구 10 만 명당 부상자 수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 일만대당 부상자 수에 있어서도 1970 년대 중반까지 2,000 명 이상이었으나, 1990 년대 들어 500 명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0 년 300 명 수준으로, 2011 년 현재 200 명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7.4.4 풍수해 개괄

표 7.4-6 풍수해 개괄

단위: 백만원, 명

연도	피해총액	이재민	인명피해				건물	건물	공공시설	기타
			합계	사망	부상	실종	피해동수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1969	130,703	10,894	67	16	49	2	2,626	NA	NA	118,145
1970	33,672	3,313	62	21	36	5	8,549	NA	NA	NA
1971	119,191	2,307	76	35	34	7	1,703	NA	NA	NA
1972	NA	230,983	485	281	180	24	41,514	757,268	NA	NA
1973	NA	NA	5	0	5	0	33	2,800	NA	NA
1974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1975	3	0	0	0	0	0	198	2	0	0
1976	52	485	1	1	0	0	497	2	34	16
1977	11,521	34,914	140	67	58	15	8,158	37	453	10,829
1978	63	3,451	3	0	3	0	732	2	21	41
1979	32	0	8	6	0	2	120	0	30	2
1980	24	0	2	0	2	0	4	2	15	7
1981	34	325	8	2	1	5	111	6	3	24
1982	6	0	3	1	2	0	131	1	3	1
1983	188	99	11	5	6	0	123	7	163	13
1984	20,274	289,804	95	41	2	52	34,964	3,084	9,249	7,757
1985	106	0	6	2	1	3	102	12	24	70

연도	피해총액	이재민	인명피해				건물	건물	공공시설	기타
			합계	사망	부상	실종	피해동수	피해액	피해액	피해액
1986	287	1	6	3	0	3	14	7	52	228
1987	15,595	34,926	106	38	1	67	17,759	376	4,724	10,456
1988	16	30	2	0	0	2	6	15	0	1
1989	20	0	0	0	0	0	33	1	5	14
1990	10,715	93,133	71	31	13	27	17,981	1,304	8,179	466
1991	261	17	19	0	3	16	275	34	136	91
1992	41	7	1	1	0	0	97	1	35	4
1993	8	0	2	2	0	0	96	0	5	3
1994	0	0	0	0	0	0	0	0	0	0
1995	4,312	0	5	3	1	1	2	14	4,026	272
1996	37	0	7	2	0	5	0	0	4	2
1997	461	161	5	0	0	5	7	149	32	280
1998	51,396	2,287	61	24	0	37	78	900	27,028	23,415
1999	10,509	1,823	3	0	0	3	22	311	9,570	629
2000	878	0	5	0	0	5	7	82	671	125
2001	58,368	465	139	35	0	104	187	8,128	31,886	18,338
2002	7,512	120	0	0	0	0	46	621	6,479	412
2003	1,891	0	1	0	1	0	7	24	1,477	390
2004	419	23	1	1	0	0	2	40	8	371
2005	101	0	1	0	0	1	2	30	71	0
2006	5,734	73	0	0	0	0	22	390	5,343	0
2007	0	0	0	0	0	0	0	0	0	0
2008	45	128	0	0	0	0	61	45	0	0
2009	24	541	1	1	0	0	340	15	7	1
2010	22,207	41,529	5	3	0	2	18,507	10,765	10,892	544
2011	31,317	34,253	61	22	0	39	14,869	9,284	21,929	80

주

1. 선박, 농경지, 농작물 피해액 항목은 피해정도와 빈도가 많지 않으므로 이 표에서는 생략하였지만, 피해 총액에는 반영되어 있음
2. 피해액은 복구비(시 및 자치구)지원액임
3. 인명피해는 거주지 기준
4. 피해액의 경우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출처

1. 1969 년~1994 년의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통계편람
2. 1995 년~2000 년의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3. 2001 년~2011 년의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서울에 불어 닥친 풍수해 가운데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것은 1972 년 8 월 태풍 베티(Betty)와 1984 년 9 월 태풍 홀리(Holly)이다. 1972 년 8 월 태풍 베티(Betty)가 지나가면서 485 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8 월 18 일부터 19 일 양일간 450㎜의 집중호우가 내려 하천이 범람 하고 많은 지역이 침수되었다. 1984 년 9 월 태풍 홀리(Holly) 때도 집중 호우로 한강 외수가 역류되는 등 강동구 풍납동, 성내천 하류 연안지역 등이 침수되었고, 인명피해는 95 명 이었다. 이외에 1987 년에는 단기간의 국지적 집주호우로 저지대에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106 명의 인명피해와 190 억 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이때 지하철 일부 구간이 침수되고 강남고속터미널이 물에 잠길 정도의 큰 물난리가 났다.

1990 년 9 월에도 강우량 486㎜의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인명피해 71 명, 재산피해 108 억원), 1998 년 7 월 31 일부 터 8 월 18 일까지의 집중호우도 61 명의 인명피해와 514 억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였다. 2001 년도 7 월 29 일부터 사흘간 서울, 경기, 강원 북부에 최고 570㎜의 집중호우로 무려 139 명의 인명피해와 584 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11 년에는 61 명의 인명피해와 313 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2011 년 7 월 26 일부터 29 일까지 4 일 연속 쏟아진 폭우로 강우량 595㎜의 비가 내렸으며, 이 중 인명피해가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로 16 명의 인명피해(사망 15 명, 부상 1 명)가 발생하였다.

7.4.5 대기오염수준 개괄

표 7.4-7 대기오염 수준개괄

단위: ppm/년, 10㎍/㎥/년

연도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먼지
1980	0.094	NA	NA
1981	0.086	0.028	156
1982	0.057	0.027	168
1983	0.051	0.028	225
1984	0.066	0.030	254
1985	0.056	0.034	200
1986	0.054	0.033	183
1987	0.056	0.033	174
1988	0.062	0.033	179
1989	0.056	0.027	149
1990	0.051	0.029	150
1991	0.043	0.033	121
1992	0.035	0.031	97
1993	0.023	0.032	88
1994	0.019	0.032	78
1995	0.017	0.032	85
1996	0.013	0.033	85
1997	0.011	0.032	72
1998	0.008	0.030	62
1999	0.006	0.035	65
2000	0.006	0.035	65
2001	0.008	0.041	70
2002	0.005	0.036	76
2003	0.005	0.038	69
2004	0.005	0.037	61
2005	0.005	0.034	58
2006	0.005	0.036	60
2007	0.006	0.038	61
2008	0.006	0.038	55
2009	0.005	0.035	54
2010	0.005	0.034	49
2011	0.005	0.033	47
서울시 환경기준 (2011 년)	0.010	0.030	50

자료출처

1. 1980 년~199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2. 1992 년~2011 년의 자료 : 서울시, 서울통계(주제별-안전-사고-교통사고현황(사망, 부상)) (http://stat.seoul.go.kr/jsp2/Octagon/jsp/WWS7/WWSDS7100.jsp?stc_cd=100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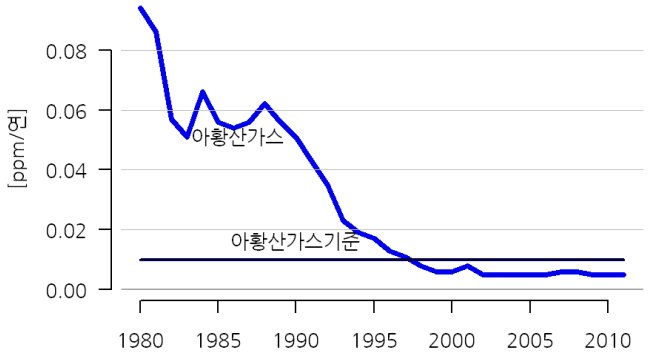

그림 7.4-14: 아황산가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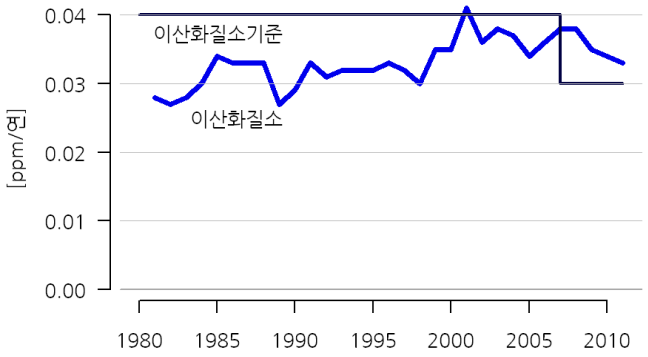

그림 7.4-15: 이산화질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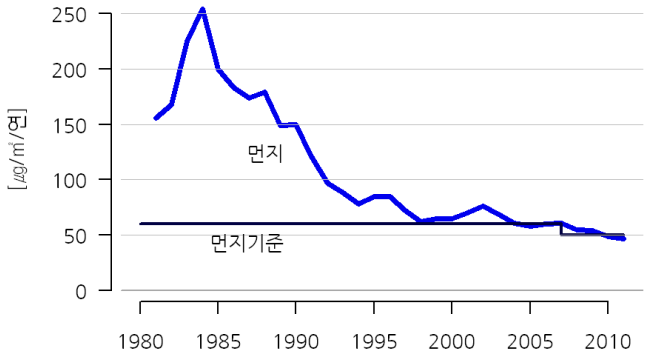

그림 7.4-16: 미세먼지 추이

1960~1970 년대의 인구증가와 산업발전, 그리고 1980 년대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으로 1980 년대까지 서울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러나 1988 년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연탄사용이 줄어들었으며, 대기오염원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실시된 결과 1980 년대 후반부터 서울의 대기오염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0 년대 후반부터는 주요 대기오염 지표들이 서울시 기준치를 대체로 충족하는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아황산가스는 1980 년 0.094ppm 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서울시 기준치인 0.01ppm 의 9.4 배에 해당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오염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1996 년까지도 여전히 서울시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1997 년에 0.011ppm 으로 떨어지면서 드디어 서울시 기준치를 충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년 현재 0.005ppm 이다.

이산화질소는 2006 년까지는 서울시 기준치가 0.04ppm 이었으며, 2006 년까지는 이 기준치에 부합한 양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2007 년부터 기준치가 0.03ppm 으로 낮아지면서 2006 년 이후 기준치 이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미세 먼지 수준은 1981 년에 당시 서울시 기준치인 60㎍/㎥의 2.6 배에 해당하는 156㎍/㎥이었다가 1983~1985 년 200㎍/㎥ 이상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한 1980 년대에 오염도 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 다행히 1984 년 254㎍/㎥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1997 년 서울시 기준치에 근접하는 68㎍/㎥로 떨어졌다. 그러나 2002 년 76㎍/㎥로 다시 약간 악화되었다. 2007 년 서울시 기준이 50㎍/㎥으로 낮아졌으며, 미세 먼지 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 년 현재 47㎍/㎥으로 서울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